

그로테스크, 고딕 서사시

GE 그레이븐 지음

머리말

천사들의 타락과 그에 따른 대홍수 이야기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세상에 전해진 가장 위대한 고딕 전설입니다. G.E. 그레이븐의 『그로테스크: 고딕 서사시』는 이러한 역사적 산문을 중세 후기까지 이어받아, 외경인 에녹서, 거인의 서, 희년서, 사해 두루마리, 솔로몬의 지혜, 시빌린 신탁 등을 바탕으로 한 서사시적 고딕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수많은 문학 유물들이 더 있습니다.

백년 전쟁의 발발과 흑사병의 창궐, 그리고 교황 대분열로 황폐해진 중세 유럽을 배경으로 하는 이 무료 온라인 고딕 소설은 풍부한 삽화와 함께 종말론적인 스케일의 역사 서사시를 그려냅니다. 고딕 소설의 주인공 라자루스 고구는 날개 달린 소년이자 수도원의 종자로, 갑자기 자신과 타락한 천사들을 파멸시키려는 경건한 인간들의 적대적인 세상에 던져지게 됩니다.

지옥에서 탈출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라자로는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중세 시대의 아마겟돈과 같은 재앙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얽혀 있는 줄거리는 반영웅적인 인물인 파문당한 장 프랑수아 추기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황청의 블라시는 라자로의 행동과 상반되는 행동을 계속해서 보인다. 세 번째 얽히고설킨 줄거리는 타락했거나 추방된 천사들에 관한 것으로, 이들은 라자로의 투쟁과 대봉인을 이루는 문석을 여는 것에 대해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타락한 천사들 중에는 라자로의 어머니이자 주요 적대자인 루시파엘이 있는데, 그는 의도적으로

우주적 종말을 지휘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온 세상의 운명이 날개 달린 소년이자 네필림인 엘조라는 기괴한 아웃캐스트 한 명의 헌신과, 마지막 소원을 완수하기 위한 그의 흔들림 없는 결의에 달려 있는, 전 지구적 규모의 흥미진진하고 복잡한 여정입니다. 그는 미지의 땅으로 날아가 수도사를 데려와야 합니다. 이 작품은 총 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권: 부활, 제2권: 시련과 고난, 제3권: 중세 아마겟돈.

